

소형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아내의 복지사역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정금선**
양혜원***

논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교회의 복지사역에 주목하여, 소형교회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을 병행하는 목회자 또는 목회자의 아내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소형교회 목회자 또는 목회자의 아내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면접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복지시설 운영 동기’, ‘복지시설 운영의 일반적 고충’,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 병행의 한계’, ‘복지시설 운영의 성과와 보람’, ‘발전방안’ 등 5개 영역에서 17개 범주, 30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소명의식과 비전, 복지사역의 본질성 및 통전적 선교 인식, 행정절차 간소화, 총회나 대형교회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 지원, 전문적 교육 및 지역연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형교회 복지사역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소형교회, 교회복지사역, 복지시설 운영, 질적 연구

* 본 논문은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소규모교회의 복지시설 운영경험에 관한 연구: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정금선, 2013)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

*** 교신저자,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년 6월 18일 접수, 10월 19일 최종수정, 11월 5일 게재확정

I. 서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즉 복지사업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 하나이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 존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 빛의 자취를 쫓아 복음을 소망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손병덕, 2007a: 369).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Calvin)은 구제를 “사도적 의무(apostolic obligation)”로 규정하고 종교적 훈육과 구제사업을 결합하도록 한 바 있다(김인, 2006: 137).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초기부터 이러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왔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학교, 고아원은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이었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을 주도해 온 핵심 세력이라 하겠으며, 이는 오늘날의 전문화된 사회 복지의 근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김수정, 2004).

그러나 한국교회의 복지사업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이와는 상이하다. 복지사업에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양적으로는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¹⁾ 구체적인 내용과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한국교회는 당위적 차원에서는 복지사업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고, 복지사업을 위한 재정적 투입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전문 인력의 고용, 체계적인 교육,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양혜원·김희수, 2011).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90년대 이후 성장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있으며²⁾, 사회적 불신의 대상이 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부족하기 때

1) 우리나라 전체 종교계 사회복지법인 중 기독교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문화체육관광부, 2009), 전체 종교계 사회복지시설 중 기독교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7.2%인 반면, 천주교 23.8%, 불교 21.2%, 원불교 3.9%로 조사되었다(고경환, 2006).

2) 한국교회는 1970년대에는 교인 수가 3배 가까이 급성장하였으나 80년대에는 46%, 1990~1996년에는 0.3% 성장에 그쳤으며, 2005년의 교인 수는 1995년에 비해 오히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성, 2009).

문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이광수·서문진희, 2014; 김수정, 2004). 기독교윤리 실천운동(2010)이 2009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회적 활동으로 조사대상자의 60.3%가 ‘봉사 및 구제활동’을 꼽은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적극적인 사회적 섬김에 나서야 하고, 특히 질적 측면에서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는 그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교회로부터 교인이 수십 명에 불과하여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교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소형교회로서 전국의 교회 5만 2,905개 중 4만 9,192개, 전체의 약 93%가 소형교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민일보, 2008. 12. 9). 즉 한국교회는 대다수가 소형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교회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사역, 특히 질적으로 우수한 복지사역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면 소형교회의 복지사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형교회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소규모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복지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소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실정이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복지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목회자의 생계수단으로 복지사역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소액의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정적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손병덕, 2010).

따라서 소형교회의 복지사역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형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빈민 지역에 위치한 한 교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김건호(1996)의 사례연구, 소형교회 복지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병철(2002)의 연구, 소형교회의 노인주간보호시설 모형 개발에 대한 이석일(2005)의 연구, 3개 교회를 대상으로 소형교회의 사회복지 참여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이수천(2008)의 사례연구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 문헌에 대한 고찰에 기초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거나 특정 복지시설의 모형을 제시하는 수준이거나 소수의 사례를 탐색하는 사례 연구로써 소형교회 복지사역의 실상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교회의 복지사역에 주목하여 소형교회 목회와 병행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회자 또는 목회자의 아내(이하, 사모)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 경험의 실상을 세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소형교회 목회자 또는 사모의 복지사역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소형교회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을 병행하는 목회자와 사모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소형교회 복지사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교회복지사역: 용어에 대한 논의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 또는 기독교인들이 수행하는 복지에 대해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사업, 기독교사회봉사,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봉사, 사회목회, 사회선교 등 매우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기독교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인데, 이 두 용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기독교는 종교적 신념체계인 반면 교회는 종교적 조직체계로서(Moberg, 1984),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기관들이 기독교적 이념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거시적·미시적 활동의 총체(조흥식, 2007; 박종삼, 2005; 유장춘, 2002)를 의미하고, 교회사회사업은 교회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는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사역(전광현 외, 2011; Garland, 1992)을 뜻한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거시적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교회사회사업은 주로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독교사회복지가 교회사회사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양희택, 2003; 유장춘, 2002). 그런데 본고에서는 ‘교회사회사업’ 대신 ‘교회복지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사업은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소셜 워크(social work)의 의미보다는 주로 자선이나 구제사업을 뜻하는 제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역은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키거나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네이버 국어사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일들, 특히 교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활동을 칭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교회복지사업 관련 주요 쟁점

교회복지사업의 주요 쟁점들 중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복지사업의 본질성, 정교분리의 원칙, 교회복지사업자의 정체성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기존문헌을 고찰하면서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회의 복지사업에 있어서 그 본질성이나 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 대다수 한국교회가 표면적으로는 복지사업을 교회의 본질적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에 무관심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무열(2007)은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가르침(teaching), 복음 전파(preaching), 치료(healing)로 나누어지고 이를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로 대변되는 통전적 선교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복지사업의 본질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재서(2013)는 복지는 전인구원의 일환으로써 복지사업의 위상은 기독교의 본질에 닿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복지사업을 통하여 선교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복지는 전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결과적 수단이 될 뿐이라고 보았다.

다음은 교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정교분리의 원칙, 즉 정부와 교회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쟁점이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한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교회와 기독교계 복지재단들이 정부지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기관운영이나 사업수행 전반에 있어서 신앙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분명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영혼에 직접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민

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수·양혜원, 2008). 미국의 경우에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후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다양한 휴먼 서비스(human service) 제공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Garland, 1992). 이러한 추세는 클린턴 행정부가 사회복지개혁법안(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을 시행한 이후 더욱 가속화되면서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정교분리의 원칙이 일부 완화되면서 이들의 자율성이 확대된 상황이다(Cnaan and Boddie, 2002). 그러나 정부의 복지개혁정책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참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Orr, 2000). 이는 교회나 기독교 기관들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Wineburg, 2000, Cnaan and Boddie, 2002에서 재인용),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충분하지 않으며 기관들의 상호연대활동도 부족하기(손병덕, 2007b)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회복지사역자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교회라는 장(setting)에서 복지사역을 수행하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와 종교지도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이중성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51명의 교회복지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얀시와 갈랜드(Yancy and Garland, 2014)의 최근 연구결과를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사회복지사라는 단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목회자, 목사, 영적 지도자 등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면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활용하는 일련의 기술로 인식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사회복지사와 종교지도자라는 이중성을 통합하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경우, 때때로 사회복지와 목회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갈등을 겪고 혼란과 불명확성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사회복지사와 종교지도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온전하게 통합하면서 둘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기보다는 두 정체성을 상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나는 이 둘이 양립하기 어려웠던 적이 없다. 내가 사회복지를 제대로 하면 그것이 곧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목회를 잘하면 그것이 바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Yancey and Garland, 2014: 302). 이는 교회복지사역자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의 하나라고 하겠다.

3. 소형교회의 개념 및 현황

소형교회라는 용어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70년대에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면서 대형교회라는 용어가 생겼고, 이에 따라 소형교회라는 표현도 등장하게 되었다(이석일, 2005). 소형교회에 대한 정의나 분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서 교인 수, 재정 규모, 종사자 수 등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어왔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교인 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데, 교인 수 300명 이하(박창우, 2008; 이수천, 2008), 200명 이하(이병철, 2002), 100명 이하(노치준, 2000; 김건호, 1996) 등 그 세부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한편, 국민일보 취재팀이 교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류한 경우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유·무급을 포함한 종사자가 1~4명인 교회를 소형교회로 구분하였다(국민일보, 2008. 12. 9.). 교인 수 뿐 아니라 교회의 자립 여부를 기준에 포함하여 분류한 경우도 있는데, 일례로 이석일(2005)은 외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교인 수 50~150명의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소형교회로 정의하였다.

한국교회는 60~70년대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인 수가 정체 혹은 감소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수는 증가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교회가 꾸준히 개척되면서 소형교회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서대석, 2000). 구체적으로 1995년 전체 인구 4,460만 명 가운데 19.6%인 876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던데 비해 2005년에는 전체 인구 4,727만 명 중 18.2%인 862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14만 명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교회 수는 2000년 43,443개에서 2007년 52,905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교회 가운데 종사자 1~4명의 소형교회는 2000년에 전체 교회의 91.98%, 2006년에는 92.89%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8. 12. 9.).

4. 소형교회의 복지사역

상기한 바와 같이 소형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로 먼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소형교회 복지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이병철(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상위 조직(감리교회의 경우 본부, 연회, 지방회 등)과의 연계를 통한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 교회 조직 이외의 다양한 지역 조직 및 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비공식 결속의 활성화,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자원의 확보, 재정 중심 프로그램에서 저자본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등을 소형교회 복지사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인 수 30명 내외의 초소형교회 3개를 대상으로 교회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의미를 탐색한 이수천(2008)은 사례로 제시된 교회들이 재정이나 인적 자원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에 맞는 방법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소형교회들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이유는 복지사역을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고, 사회복지를 교회 부흥이나 목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 보고 있으며, 통전적 선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 소형교회 복지사역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교회의 복지사역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실천모형이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시도의 일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박창우(2008)는 복지성향 및 복지자원을 교회 복지사역의 결정요인으로 보고 복지성향(적극/소극)과 규모(대형/중형/소형)의 조합에 따라 복지사역 유형을 5개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적합한 복지사역 실천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중 소형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성향이 적극적인 소형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적극적인 복지의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변 복지기관과 연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복지욕구 해소에 기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때 교회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에서부터 평가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복지성향이 소극적인 소형교회는 목회자 및 교인들의 사회복지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기초교육, 입양교육, 장애인복지교육, 노인복지교육 등을 실시한 후, 교육 수료 후에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노치준(2000)은 교회를 지역에 따라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로, 성인 교인 수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적합한 복지사역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소형교회의 복지사역 모델로는 협동적·자원봉사적·목회자 주도적 모델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보다는 인근 복지기관이나 시설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회시설이나 물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을 주로 활용하여 복지사역에 참여하며, 담임목회자가 복지사역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소형교회는 복지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인들 간에 친밀감이 강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목회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적은 교인 수에 기인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교회는 물론 목회자의 생존이 어려운 경우가 드물지 않고, 이러한 상황은 소형교회가 양질의 복지사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양혜원·김희수,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다수의 소형교회들이 주로 지역아동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파견시설, 그룹홈 등 다양한 소규모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복지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데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목회자들이 생활의 방편으로 복지사역에 참여한다는 부정적 시각이나 재정적 투명성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열악한 시설과 재정 형편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부정적 견해가 팽배한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역아동센터를 들 수 있다. 전국 3,0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들 중 절반 이상을 교회나 기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형교회가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열악한 환경과 저급한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손병덕, 2010).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소형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나 사모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소형교회 목회자 또는 사모의 복지사역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심층면접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의 본질을 포착해내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소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복지시설 운영을 병행하고 있는 목사 와 사모이다. 소형교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교인 수를 근거로 하고, 기존 연구를 통하여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확 인된 100명 미만 교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교인 수 100명 미만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또는 사모이며, 동시에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 로 하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다. 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표면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는 배제하고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최소 4년 이상인 경우로 하여 면접 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이러 한 기준에 부합하는 목사 5명, 사모 5명 등 총 10명이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는 데, 이들은 모두 서울·경기 지역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다. 연구 참여 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7 명이고, 연령은 전원이 50~60대이며, 학력은 대졸 3명, 대학원졸 7명으로 높은 편이다. 시설의 유형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시설, 그룹홈 등이다. 시설운영 기간은 짧게는 4년에서 길게 는 27년까지 다양하였다.

〈표1〉 연구 참여자 특성

구분	직분	성별	연령	학력	시설 유형	시설운영 기간
참여자 1	사모	여	50대	대졸	어린이집	4년
참여자 2	목사	남	50대	대학원졸	지역아동센터	7년
참여자 3	목사	여	50대	대학원졸	지역아동센터	6년
참여자 4	사모	여	50대	대졸	지역아동센터	7년
참여자 5	사모	여	60대	대학원졸	재가노인복지센터	6년
참여자 6	목사	남	50대	대학원졸	지역아동센터	7년
참여자 7	목사	여	50대	대학원졸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7년
참여자 8	목사	남	60대	대학원졸	재가노인복지센터, 그룹홈	6년
참여자 9	사모	여	60대	대학원졸	장애인시설	27년
참여자 10	사모	여	50대	대졸	재가노인복지센터	6년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참여자들과 약 1~2시간 소요되는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면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는데, 예비조사는 2013년 7월 초에, 본조사는 2013년 7월 말~8월에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목록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주요 질문은 목회를 하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 동기,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을 병행하면서 경험한 바, 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바 등이다. 면접의 흐름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연구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질문은 자유롭게 추가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면접내용은 녹음 후 필사하여 문서화하였고, 이를 분석의 원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코르빈(Corbin)과 스트라우스(Strauss)(2008)의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필사된 원자료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읽으면서 문장의 의미와 상호작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코딩하였다. 이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려는 과정을 통하여 개념을 추출하고, 개념에 대한 비교를 지속하면서 유사한 개념들로 범주를 구성했으며, 이를 다시 통합하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 2인이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였고,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학전공 연구자(교수)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IV. 연구결과

〈표2〉 분석결과

영역	범주	개념
복지시설 운영 동기	전도의 통로	① 전도의 문을 열고자
		②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의 발판
	소명과 비전	① 복지사역에 대한 소명
		② 복지목회에 대한 꿈의 실현
복지시설 운영의 일반적 고충	지역적 요청	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필요	① 생활의 수단
	재정적 문제	① 부족한 정부 보조금
		② 쉽지 않은 후원금 모금
	과다한 행정적 요구	① 서류에 치여서 아이들은 뒷전
		② 평가 때문에 억지로
	열악한 근무 환경	① 급여는 적고 할 일은 많고
		② 길고 긴 근무시간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 병행의 한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거부감
		② 돈 관리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봄
	교회가 운영하는데 대한 기대와 부담감	① 이용자들의 부적절한 기대
		② 운영자들 스스로의 부담감
	목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① 목회자의 영성이 떨어지고 목회에 소홀하게 됨
		② 교회가 쇠락해감
	종교적 중립의 한계	① 선교활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인한 딜레마
복지시설 운영의 성과와 보람	교회 성장의 기회	① 지역사회에 교회가 알려짐
		②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함
	이용자들의 긍정적 변화	① 피어나는 아이들
		② 믿음으로, 신앙으로 변화됨
발전방안	비전의 실현	① 하나님께서 이루심
		①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② 지역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충
	소형교회 복지사역 발전을 위한 노력	③ 세상 기준을 넘어서려는 몸부림

목회를 하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0명의 연구 참여자와 개별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얻어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에서 17개 범주, 30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2>와 같다.

1. 복지시설 운영 동기

(1) 전도의 통로

① 전도의 문을 열고자

연구 참여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다. 교인 수가 적다보니 기존 교인들을 통한 전도가 쉽지 않은데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촉점”이 생기고, 그러한 만남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를 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요. 작은 교회들은…. 그런데 이런 아동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드나들면 전도에도 도움이 되고” <참여자 3>

“이제 아이들 전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무료 학습지도 하면서 엄마들 만나고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4>

②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의 발판

특히 교회를 이전하여 새로운 지역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상황에서 복지시설을 병행하여 운영하면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다. 복지사역이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의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2006년 즈음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면서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성도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해봐라. (중략)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참여자 6>

“우리가 그걸 시작할 때에는 교회 사역하고 맞물린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 만나기 어렵고, 아

파트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 사람들과 깊이 접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는데...” <참여자 8>

(2) 소명과 비전

① 복지사역에 대한 소명

반면에, 전적으로 복지사역에 대한 소명의식 때문에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처럼 복지사역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는 경우, 목회와 더불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복지시설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명이 있으니까 하지요. (중략) 신앙이 전부죠. 신앙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항상 하는 이야기죠.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은 사명으로 하지 않으면 못한다, 사회복지사로 그냥 개인 월급 아니면 노후의 어떤 안정적인 직장인으로서의 생활,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아직 이쪽은 안돼요. (중략) 복지라는 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역에 숨어있는 사람들 발굴해서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또 제공받은 사람들 보면 즐겁고, 일상 삶이 좋은 서비스 받아서 좋아지는 것도 즐겁고. (중략)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으로 바라보니까 힘든 줄 모르고 가는 거지.” <참여자 7>

“정말 복지도 소명의식 없고 사명 없으면 못해요. 목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명 없이 하면 제가 그냥 끊으라고 해요. (중략) 그런 가운데 2009년도에 평가를 받았는데 ○○시내 25개 시설 가운데 우리 ○○구가 1등 했어요. 그때 제가 협회회장을 2년 동안 하면서 그런 쾌거를 이뤘고 우리 센터가 그때 답을 받았어요.” <참여자 2>

② 복지목회에 대한 꿈의 실현

또한 일찍부터 복지목회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신학공부를 하던 시절부터 차별화된 복지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경우나 처녀시절부터 장애인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례 역시 그러한 비전이 실현된 것에 대해서 보람과 감사를 느끼고 있었다.

“뭔가 차별적인 목회를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복지목회를 강의를 하시면서 꿈을 심어주셨죠. 그때부터 복지목회 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참여자 2>

“처음 86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열악하다고 할까 인식이 안 좋았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 심어주려고 장애인들에게. (중략) 시작할 때 우리 집에 맡기는 대신 교회 나가세요. (중략)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녀들을 통해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것이 다 보람이었죠. 아는 언니에게 장애인의 수족이 된다고 하는 처녀적의 입의 고백을 그대로 현실로 들으셨지.” <참여자 9>

(3) 지역적 요청

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목회를 하면서 복지시설을 시작하게 된 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역적으로 열악하거나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 등에서 목회하면서 교인이나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접하게 되었고, 그러한 욕구를 채우고자 노력하다 보니 점차 단순한 봉사 차원을 넘어서서 어느덧 본격적인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 지역이 열악해요. 힘든 가정이 많고 (중략) 2002년도에 선교원을 했는데 한부모가정들이 많아서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으니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학습지도부터 시작했어요.” <참여자 4>

“여기는 농촌교회구요, 소규모교회예요. 그러다보니까 독거노인들과 농촌에는 노인부부만 사는 세대가 많이 있어요. (중략) 자연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지요. (중략) 교회에서 교회식구들, 성도들을 돌보다보니 자연적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점 많아지고 시대에 따라 요청하게 되고 욕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형태라 할 수 있죠.” <참여자 5>

(4) 경제적 필요

① 생활의 수단

소형교회의 복지사업은 목회자의 생활 방편이라는 비판이 전적으로 왜곡된 시각은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목사 사례비가 제대로 지급되기 어려운 소형교회를 목회하면서 경제적 필요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자 복지사업에 뛰어들 경우도 있었다.

“일단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수입이 생기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참여자 8>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게끔 되는 시기가 왔어요. 대학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중략) 무엇을 해야 할까 찾는 중에 이게 장기요양보호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를 하면 되겠다고 해서 1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참여자 10>

2. 복지시설 운영의 일반적 고충

(1) 재정적 문제

① 부족한 정부보조금

연구 참여자들이 꼽은 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 중 첫 번째는 부족한 정부보조금이었다. 운영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료는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담해야하는 경우 시설장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였다.

“지금까지 보면 재정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교회가 커서 뭐 밀어주면 좋은데...(중략) 사실 내가 여기서(복지시설에서) 월급이라고 조금 책정 받으면 그건 임대료 내면 없어요. 임대료 정도는 운영비에서 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주면 좋은데...” <참여자 2>

“경제적인 게 쥔 어렵죠. (중략) 운영비는 실제로 올해부터 530만원인데... 작년에는 370만원인가 했을 거예요. 이 530만원을 인건비를 하루 종일 일하고, 시설장 같은 경우는 11-12시간 일하잖아요? (중략) 4대 보험을 다 포함해서 110만원이에요. (중략) 110만원씩 세 명 330만원 빼면 200만원 남아요. 임대료는 자부담이에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쓸 수가 없어요.” <참여자 4>

② 쉽지 않은 후원금 모금

정부보조금이 부족한 실정에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금 모금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만은 않았는데, 인지도가 있는 대규모 복지기관들과는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복지시설을 선택 후원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이 절실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질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원금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후원자 연결을 해요.” <참여자 9>

“후원자는 힘들어요. 사실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이름이 있고 확실하니까 (후원자가) 있는데 이런 지역아동센터는 처음 시작할 때에 그거 자체가 동네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사업 공부방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참여자 6>

“후원도 아동 쪽이 약해요. 저희가 계속 후원을 개발하고 있지만…, 뭐 몇 만원 몇 십 만원 가지고는 사실 집세를 내기도 힘들고…” <참여자 2>

(2) 과다한 행정적 요구

① 서류에 치여서 아이들은 뒷전

재정적 문제에 이어서 연구 참여자들이 호소한 복지시설 운영의 고충은 행정적 부담이었다. 지자체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다. 서류를 작성하느라 정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례도 있었다.

“서류는 뭐 처음에는 그리 힘들지 않았는데 점점 최근에 와서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재정문제보다는 서류문제가 심각하죠. 점점 많아져서 160가지나 된다고 이야기해요. 쓸데없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요렇게 저렇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중략) 다른 센터에서 새롭게 하면은 다 따라서 하라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점점 많아져요.” <참여자 6>

“서류에 치여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아요. 평가 받을 때 그런 서류가 있지만 저희가 운영비, 급식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것도 정산하려면 (중략) 간략하게 서류를 좀 하면 좋은데…” <참여자 4>

② 평가 때문에 억지로

행정적 부담과 더불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평가 역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었다. 평가를 준비하느라 시설장과 직원들이 힘들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평가를 위해서 억지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고, 평가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많다보니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많은데 평가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으로 사례관리 같은 걸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든 안하든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야 할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따라 아이들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참여자 9>

“선생님들도 좀 힘들어 하시고 저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 좀 문제들이 있죠. 엄마들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꾸 부탁을 하니까. 늦게 오는 아이도 거기에 맞추려면…. (중략)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가 이런 식으로….” <참여자 1>

(3) 열악한 근무 환경

① 급여는 적고 할 일은 많고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즉 업무는 과중한데 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봉사정신이나 신앙의 힘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급여는 적고 하는 일은 많고 더군다나 아이들과의 문제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중략) 봉사정신만 있으면 되는데… 현대에 급여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참여자 6>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돈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우리 복지사 선생님도 가장인데 아이가 둘인데 110만원에서 4대 보험 빼고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몇 년씩 있냐고요.” <참여자 4>

② 길고 긴 근무시간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근무하려는 직원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시설장 혼자 근무하거나 늦게 시설 문을 여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아침에 일찍 하고 저녁에 늦게 가니까 그게 힘들어요. 교사는 9시에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한 두 시간, 저녁에 한 두 시간 이렇게 혼자 감당하려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중략) 솔직히 일찍 나오려는 교사가 없어요. 누가 7시 반에 나오겠어요? 원장이 다 봐야지.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자 1>

“11시요. 늦게 여는 편이기는 한데… 아이들 다 보내고 차량까지 끝나면 10시 되거든요. 그러면 10시에 바로 퇴근하는 것도 아니죠. 서류 정리하다 보면 11시…. 9시에도 열고 10시에도 여는 기관들이 있는데… 저희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여자 4>

(4) 직원의 잦은 이직 및 현장 전문성 부족

① 구하기 어렵고 쉽게 그만두고

직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직원들이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역시 복지시설 운영의 고충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를 구하면 바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용자들에게도 부정적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급여가 워낙 적다보니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었다.

“여기도 센터도 이직률이 많아요. 보통 1년, 6개월 사이에 나가는 분도 많고. <참여자 6>

“(직원이 자주 관두는 것) 그게 켈 힘들어요. 시설을 한다는 게..., 자주 바뀌고 교사 구하기도 힘들고 대우를 잘해주면 구하기가 그래도 수월할 텐데..., 아이들에게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좋은 자리 있으면 바로 가게 되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대우가 나오니까.” <참여자 4>

② 현장을 모르는 직원들

직원의 전문성,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역시 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사회복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심지어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현장실무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 처음 복지사들을 채용해 보니까 그걸 몰라요. 경력이 있어도 몰라요.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냥 막 야단치면 되는 줄 알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억지로 시키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중략) 아이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참여자 3>

“선생님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와도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자격증을 따고 왔어도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다니며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키워 가는데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와서는 현장에서 잘 몰라요.” <참여자 5>

(5) 과도한 경쟁

① 지나친 경쟁으로 부당한 일이 난무함

복지시설이 급증하면서 시설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재가노

인복지센터의 경우가 더욱 그러했는데, 선의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지나친 경쟁 과정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편법이 등장하는가 하면 요양보호사가 이용자들을 데리고 다른 센터로 옮겨가는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

“굉장히 경쟁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15%(이용자 부담금)를 안 받아도 (이용자가) 없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안 받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내는 입장의 사람들은 굳이 낼 필요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참여자 8>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보유한 대상자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많았는데 우후죽순으로 방문요양 센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센터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또 아주 못된 행동도 하죠. 요양보호사가 환자들을 끌어다가 다른 센터로 데리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여자 10>

3.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 병행의 한계

(1)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거부감

연구 참여자들이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을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난관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관련 시설이라는 이유로 자원 봉사나 후원을 꺼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고, 특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 교회를 다녀야할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시설 이용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원봉사자들, 후원하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자원봉사하려고 했다가도 좀 꺼리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후원을 하려고 했다가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곳이었어 그러면서 꺼리는 경우도 있었죠.” <참여자 7>

“교회기 때문에 여기를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잖아요. 아무리 여길 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교회 안 오면 못 다니게 하는 것도 아닌데…. (중략) 교회 다니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참여자 3>

② 돈 관리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관련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는 바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보조금이 일부라도 교회 운영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비리가 있긴 있었나 봐요”라는 <참여자 4>의 진술을 통해서 이러한 시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보조금을 교회에서, 급식비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속상하죠.” <참여자 3>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기관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구청에서 그래요. 엄마, 아빠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구청에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기관들은 특별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략) 아무튼 비리가 있긴 있었나 봐요.” <참여자 4>

(2) 교회가 운영하는데 대한 기대와 부담감

① 이용자들의 부적절한 기대

이용자들 중에 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부적절한 기대를 가진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복지시설을 통해서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으니까 이용자 부담금(노인재가 요양서비스) 정도는 면제해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 사례비 지급도 어려운 형편의 소형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몹시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헌금도 받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냥 해줘도 되는 것 아닌가? 교회에서 그 정도도 못해주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나라에서 보조 외에 15%는 본인 자비의 부담이 필요 하거든요.” <참여자 5>

② 운영자들 스스로의 부담감

반면에,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였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운영자가 목사나 사모이니만큼 다른 시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이러한 부담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중압감으로 시설운영

자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였다.

“아이들을 맡았으니까 잘해야 하잖아요. 뭐 대충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부담은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니까...” <참여자 3>

“맨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중략) 내가 또 사모다보니까 더 잘해줘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로서 욕을 얻지 말아야지..., 또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참여자 1>

(3) 목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① 목회자의 영성이 떨어지고 목회에 소홀하게 됨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목회와 병행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운 상황에 곤혹스러움과 한계를 느꼈다. 특히 시설운영으로 인해 설교에 영성이 떨어지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더 이상 목회가 최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목사가 교회보다는 아동센터에 많이 치중하고 신경 쓰고 그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설교에 영성이 떨어지는 거야. (중략)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영성을 유지하려면 아동센터에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쪽이 또 마음에 찢리고...” <참여자 6>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목회에) 소홀한 것을 느낄 때 이것을 과연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선순위죠. 나는 목회가 우선순위인데 이것에 치우쳐 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까하는...” <참여자 3>

② 교회가 쇠락해감

복지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기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크게 쇠락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2>의 경우, 교회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 특히 교회에 금전적 부담이 생길 것을 염려하는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참여자 6>은 교인 수가 크게 줄어들자 아예 교회 간판을 떼고 복지시설 간판만 남겨놓았다.

“절대 교인들에게는 금전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기도만 해달라…. 보증금 같은 것은 제가 다 한다. (중략)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 떠나고 모여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들만 남아 계신 거죠. 오히려 지금이 편해요.” <참여자 2>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데 교회가 처음에는 30~40명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하다가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점점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교회 간판을 떼어 버리고 아동센터 간판만 있고…. 그냥 다니는 성도는 열 몇 명 고정 멤버 있으니까 아예 교회 이름을 떼어버리는….” <참여자 6>

(4) 종교적 중립의 한계

① 선교활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인한 딜레마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복지시설에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딜레마를 경험하였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했고”, “교회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전해야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용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나 지자체의 압력 때문에 선교활동이 제한되는 현실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다.

“오히려 그때 당시는 비인가로 있다 보니까 내 신앙을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이 더 힘들어요. 지금은 인권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중략) 여기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도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라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자 9>

“더군다나 교회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전해야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종교성을 띄는 그런 교육은 못하게 해요. 폐쇄를 한다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여자 3>

4. 복지시설 운영의 성과와 보람

(1) 교회 성장의 기회

① 지역사회에 교회가 알려짐

연구 참여자들은 소형교회 목사나 사모로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의 성과로 교회 성장의 기회를 꼽았는데, 먼저 지역사회에 교회가 알려지게 된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

였다. 소형교회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지역에 교회를 알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니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 생동감이 넘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교회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가 항상 아무리 성경공부를 해도 그냥 토요일이나 금요일, 주일만 사용하잖아요. (중략) 일층에 이렇게 아이들과 교사들과 원장이 있다 보니까 생동감이 넘치고 교회가 많이 알려지게 되고 좋은 이미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교회 가보라고 소개시켜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새로 이사 왔을 때 장로교회를 찾는다면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근처에 살면서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일을 하면서 더 알아주시죠.” <참여자 5>

②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함

또한 시설장이나 시설의 직원들이 이용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 이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인데, 그러한 기대가 실현되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전도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사례들은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을 병행함으로써 목회자가 영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교회가 크게 축소되어버린 사례들과는 상반된 것으로 소형교회의 복지시설 운영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양한 양상임을 보여준다.

“제가 안 믿는 타종교분들에게는 말씀을 아예 안 드리지만 안 믿는다가나 믿다가 아직 이사를 와서 못 다니거나 결혼해서 못 다니는 그런 경우 제가 전도 편지를 드리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죠.” <참여자 1>

“봉사하는 사람들이(직원들) 여러 사람들을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을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지요.” <참여자 9>

(2) 이용자들의 긍정적 변화

① 피어나는 아이들

시설 이용자들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역시 복지시설 운영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자 보람이었다. “다 죽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부모님들의 의식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 처음 와서는 아이들의 얼굴이 다 죽어있어.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치이고 하니까. 아무튼 학교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 오면 다 피는 거예요. (중략) 센터 가는 아이들은 다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참여자 2>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더라고요. 전부 다 아이들 가정이 결손이에요. 한부모가정, 조손, 다문화... 아이들이 사실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동학대가 별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조금씩 좋아지고 부모님의 의식도 변화되면서 의사소통 되고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람이 있죠.” <참여자 3>

② 믿음으로, 신앙으로 변화됨

특히, 이용자들의 변화가 믿음으로 인한 변화, 신앙적 변화일 때 참여자들의 보람과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긍정적 변화가 “믿음으로, 신앙으로는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뭔가 믿음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 그 때는 보람이 있죠.” <참여자 6>

“환경은 뭐 자기들이 어떤 방치된 환경에서 살다가 시설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받고 좋은 환경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안 바뀌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는데 제가 가장 보람되고 정말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는 바뀌더라 그게 가장 보람되고 앞으로도 또 그것 때문에 할 수 있고.” <참여자 7>

(3) 비전의 실현

① 하나님께서 이루심

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그러한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다.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걸었더니 어느덧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감사의 잔이 넘치게 된 것이다.

“내가 꿈꿔왔고 목표했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았던 그분들의 그 마음을 갚으려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감사해.” <참여자 2>

“복음 하나 심어주려고 장애인들에게 시작할 때... (중략) 목사님이 맨 처음 12명으로 시작하셨어요. (중략) 지금 와서 이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복음적인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들을 겪었지요.” <참여자 9>

5. 발전방안

(1) 소형교회 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노력

①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소형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수의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제안하였다. 시설장이 제대로 교육 받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직원들도 바르게 이끌 수 있으므로 자신이 먼저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직원들 역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게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은 공부를 해야 해요. 이론과 실재가 겸해야지. 이론이 뒷받침 돼서 현장에서 일하면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죠. (중략) 그래서 제가 더 공부하려고 해요. 지금보다 더 공부해야 내가 시킬 때 권위가 서지. 난 하면서 배운다. 이왕이면 학위과정 하면서 직원들에게도 그래요, 공부해라.” <참여자 2>

“시골에 있다 보면 정보에 자꾸 뒤처지게 되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일을 보충하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 역시 학비를 드리고 계속 공부하실 것을 권유, 대학원까지 가게 해드린 경우도 있고요.” <참여자 5>

② 지역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충

지역적 연계 역시 중요한 발전방안으로 언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동일한 사역을 하는 지역 내 시설들 간의 연계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의 연계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재정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소형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지역연합회가 있으니까, 30여개의 아동센터가 있으니까 이 연계를 통해서 수많은 자원이 있는 거예요. 이벤트적인 체육대회 이런 것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센터만이 아니라 지역연합 연계 차원으로 하고 싶고….(중략) 향후 이런 것들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3>

“지역 연계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회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의료 연계나 미용 연계, 음식 연계, 기술 연계, 그 연계 자원을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참여자 7>

③ 세상 기준을 넘어서려는 몸부림

소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복지사업에 뛰어들 연구 참여자들이 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바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고자 하는 치열한 시도였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 하나도 세상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가지고 “안 믿는 센터”와 다른 “최상의 것”을 먹이겠다는 철학이 있고, 전문성 있고 질 좋은 프로그램, 더불어 자신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 따라 복음이 전해진다는 신념이 있었다. 이들은 “영혼의 문제까지” 다루고자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내게 그런 철학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을 챙겨야지, 음식 하나를 먹여도 최상의 것을 먹여보자. (중략) 교회가 아이들 것을 다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편견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 신앙이라는 건, 양심이라는 건 오히려 그분들 보다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신앙 양심, 그것이 안 믿는 센터와 달라야 하고 교회에서 하는 시설에서 분명하게 보여줘야 그 분들의 편견을 조금이라도 깰 수 있는 거고….” <참여자 3>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평가에서 ○○지역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중략)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왜냐하면 다른 것은 전문성이 없이 복음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전문성, 질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 <참여자 7>

“삶을 향상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생각하고 웰빙을 부르짖지만 영혼의 문제까지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영혼의 문제) 놓치면 나는 해야 할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죠.” <참여자 9>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소형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사모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바의 실상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소형교회 목회자와 사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면접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복지시설 운영 동기’, ‘복지시설 운영의 일반적 고충’,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 병행의 한계’, ‘복지시설 운영의 성과와 보람’, ‘발전방안’ 등 5개 영역에서 17개 범주, 30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서 소형교회 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형교회 목회자나 사모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필요에서 시작한 사례도 없지 않았으나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한 경우도 있었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경우도 있었다. 특별히 복지시설 설립 이전부터 복지사업에 대한 강한 소명과 복지목회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나 그 결과 역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운영에 부정적인 교인들이 떠나가서 교회가 축소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지시설 운영으로 평일에도 교회에 활기가 돌고 전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사례, 특히 목회자 자신이 복지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이라는 두 가지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하면 다른 하나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혼란과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양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는 우선 목회자나 사모의 복지사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비전의 중요성이다. 분명한 소명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복지사업에 참여한 사례의 경우는 사업의 성과나 사업자들의 만족감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시작한 참여자 7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최고의 센터로 인정받았고 시설장으로서 강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장애인복지에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참여자 9 역시 복지시설의 빠른 성장을 경험하였고 이용자들의 세상적 필요 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다룬다는 확고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업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2는 복

지시설 운영 초기 교인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경험했으나 이를 수용하여 작은 규모이지만 목회를 지속하고 있었고 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자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과 목표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었다. 확고한 소명의식과 비전이 소형교회에서 복지사역에 참여하는 것의 한계와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한편, 복지사역으로 인한 교회의 축소 또는 성장과 관련하여, 교인들의 복지사역에 대한 의식의 중요성과 복지시설 설립에 대한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복지성향이 소극적인 소형교회의 경우 교인들의 복지의식 성장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다양한 복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박창우(2008)의 주장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교인들이 복지시설 운영 이전에 설교나 교육 등을 통하여 복지사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더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경험도 축적되어 있다면 교회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감을 갖거나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지시설 운영이 목회자 개인적 차원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차원의 사역이라는 인식, 즉 교인들이 모두 함께 지역에 봉사하는 사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생성되면서 복지시설의 발전은 물론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목회자들이 호소한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나 혼란, 그리고 선교활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인한 딜레마에 관련해서는 목회와 복지사역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고민과 혼란은 목회와 복지사역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목회와 복지사역을 별개로 인식하면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에 집중하여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게 되면 혼란과 불편감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회의 복지사역은 목회의 일부분이지 별개가 아니며, 복지사역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이재서, 2013; 최무열, 2007). 물질·인적 자원이 부족한 소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복지시설 운영의 모든 책임을 목회자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겠으나 이는 자원의 확충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복지사역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복지시설 운영이 목회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인식, 즉 목회와 복지사역에 대한 통합적 인식 및 통전적 선교관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형교회도 복지사역의

본질성과 통전적 선교관이 분명한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복지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수천(2008)의 연구결과나 사회복지사와 종교지도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상보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혼란을 극복한 교회복지사역자의 사례(Yancy and Garland, 2014)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소형교회 목회자나 사모들 역시 일반적인 소규모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겪는 고충을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지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재가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복지시설들은 부족한 정부보조금,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적 요구, 열악한 근무환경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 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질·인적 자원이 부족한 소형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며 근무환경이나 종사자 처우를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행정적 요구는 복지시설 운영을 체계화하고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정기적인 평가와 체계적인 행정 절차 수립을 통하여 소규모 복지시설의 발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소규모 복지시설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오면서 이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행정업무에 매달리느라 정작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없는 안타깝고 기이한 현실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소형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일반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더불어 기독교계의 자구 노력도 요구된다. 보조금 인상, 종사자 처우나 근무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 차원에서 소형교회 복지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총회 외에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이나 대형교회들 역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대형교회는 개교회의 입장에서 복지사역을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의 복지사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양혜원·김희수, 2011) 소형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그 대표적인 형태라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참여자들은 소형교회 복지사업의 발전방안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강화, 지역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충, 그리고 일반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서비스와 영성에 대한 개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소형교회 복지사업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형교회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소형교회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데, 우선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대상 교육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그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사회복지관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복지기관의 종사자들과는 차별화되는 교육적 욕구가 있을 것이므로 이들을 위한 특화된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일방적으로 시설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복지시설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해당 시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소형교회의 복지시설을 위한 교육 및 지역적 연계를 위해서는 총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지원과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총회와 기독교 단체들에서 소형교회 복지사업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단을 초월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소형교회 복지시설들의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형교회는 물론 중대형교회를 포함한 교회복지사업 전반에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회복지사업자들은 일반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지역사회 자원으로부터 고립되는 경향이 있고, 동료나 슈퍼바이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Yancy and Garland, 2014).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이메일, 블로그, 홈페이지 등 인터넷 기반의 연계를 활용하는 전략이 제시되기도 하였다(Northern, 2009).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수월성과 영적 개입, 즉 전문성이 담보된 교회복지사업을 위한 연구 노력이 요구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공의 성격을 띠는 소규모 복지시설의 경우, 원론적 차원에서는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사회복지 실천과 차별화되는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총회, 기독교 단체, 대형교회 등에서는 본격적인 교회복지사역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소형교회의 복지사역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회복지사역 실천이론을 구축하고, 소형교회를 대상으로 실천모델 및 매뉴얼 개발, 평가 및 자문 제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소형교회의 복지사역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교회 목회와 복지시설 운영을 병행하는 목회자 또는 사모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소형교회 복지사역의 현황이나 복지사역의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후속연구가 요구되는데, 우선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여 소형교회 복지사역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형교회는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최근 복지사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기본적인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형교회 복지사역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한다. 전문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복지사역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경환 (2006).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보건복지포럼』, 115. 65-73.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 김건호 (1996). “빈민지역선교에 있어 작은 교회의 봉사 사례에 관한 연구: 신림10동 신양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김수정 (2004). “기독교 신학생들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욕구.” 『신앙과 목회』, 22. 289-315.
- 김 인 (2006). “한국 교회사회복지의 정책과제.” 『교회사회사업』, 4. 117-151.
- 김희수·양혜원 (2008).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앙과학문』, 13(3). 115-164.
- 노치준 (2000). “제5장: 사회복지를 향한 개신교의 사회봉사.”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기독교와 한국사회 7』, 160-205.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8 한국의 종교현황』.
- 박종삼 (2005). “기독교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와 디아코니아 신학.”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기독교 생명운동』.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05 자료집. 15-30.
- 박창우 (2008).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 『신앙과 학문』, 13(2). 157-188.
- 서대석 (2000). “한국 교회 사회봉사의 실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 손병덕 (2007a). “지역사회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교회역할 연구.” 『충신대논총』, 27. 367-383.
- _____ (2007b). “기독교사회복지의 세계사적 고찰.”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15-228.
- _____ (2010). “기독교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독교와 사회봉사총론』.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 양혜원·김희수 (2011). “한국교회 복지사업의 현황 및 대형교회의 발전적 역할 모색.” 『신앙과 학문』, 16(3). 10-30.
- 양희택 (2003). “교회사회사업 Program 교육 욕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회사회사업』, 1. 115-144.
- 유장춘 (2002).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8. 86-135.

- 이광수·서문진희 (2014). “교회사회봉사실천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교회사회사업』 26. 79-114.
- 이병철 (2002). “소규모 교회의 사회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상성 (2009). “소망 없는 소망의 교회-대형교회의 성장과 문제점.” 『역사비평』 89. 174-207.
- 이석일 (2005). “소규모교회를 통한 노인주간보호시설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이수천 (2008).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소형교회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 이재서 (2013). 『기독교사회복지의 근원: 복지신학으로 가는 길』. 서울: 세계밀알.
- 전광현 외 (2011). 『기독교사회복지: 이해와 실천』. 서울: 양서원.
- 조홍식 (2007).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방법론.”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139-150.
- 최무열 (2007). “선교신학에서의 사회복지-에큐메니칼, 복음주의, 그리고 통전적 선교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53-69.
- Cnaan, R. A. and Boddie, S. C. (2002). “Charitable Choice and Faith-Based Welfare: A Call for Social Work.” *Social Work* 47(3). 224-235.
- Corbin, J. and Strauss, A. C.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Inc.
- Garland, D. S. (Ed.) (1992).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이준우 역 (2001). 『교회사회사업』. 서울: 인간과 복지.
- Moberg, D. O. (1984). *The Church as a Social Institution: The Sociology of American Religion*. MI: Baker Book House.
- Northern, V. M. (2009). “Social Workers in Congregational Contexts.” *Social Work & Christianity* 36(3). 265-285.
- Orr, J. (2000). *Faith-Based Organization and Welfare Reform: California Religious Community Capacity Study Qualitative Findings and Conclusions*. Center for Religion and Civic Culture.
- Yancy, G and Garland, D. (2014). “Christian Congregations as Context for Social Work.” *Social Work & Christianity* 41(4). 279-307.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8. 12. 9.) “5만 교회 현주소 GIS 분석”(검색일. 2008. 12. 9)
[http://cafe.daum.net/gigu9125/FGMx/89?docid=19oSo|FGMx|89|20100221000510&q=5
%B8%B8%B1%B3%C8%B8%20%C7%F6%C1%D6%BC%D2](http://cafe.daum.net/gigu9125/FGMx/89?docid=19oSo|FGMx|89|20100221000510&q=5%B8%B8%B1%B3%C8%B8%20%C7%F6%C1%D6%BC%D2)

Abstract

Participation in Church Social Work by Pastors and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Kum-Sun Jung (Chongshin University)

Hae-Won Yang (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articipation in church social work by pastors and pastors' wives who were serving in small churches. Five pastors and five pastors' wives who were serving in small churches and running social work agencies at the same time were interviewed an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sed qualitatively. From this data, the researchers derived 30 concepts and 17 categories from 5 areas: 'motivation of running social work agencies', 'general difficulties of running social work agencies', 'limitations of ministry and running social work agencies at the same time',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f running social work agenci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discussions are presented regarding the development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small churches' social work, including sense of vocation and vision; recognition of essentiality of church social work and holistic mission;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support from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religious bodies and megachurches; and expans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community network.

Key Words: small churches, church social work, running social work agencies, qualitative research